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98 서리집사 715명 오늘 임명

교구장, 지역장, 다락방장, 권찰 등 교구일꾼도 임명 Ⅲ부 예배 후에는 1층 예배실에서 전교구 연합총회도

1998년도 우리교회 서리집사 임명식이 I·II·III부 예배 시 거행된다.

오늘 임명되는 서리집사는 남자 294명, 여자 421명으로 모두 715명이다.

오늘 임명되는 서리집사 중 신임은 89명이다.

이들은 디모데전서 3장 8-13절에 나타난 집사의 자격에 기준하여 당회의 추천을 받아 지난 11월 면접과 교육을 거쳐 오늘 임명을 받게 됐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딤후3:8-13)

교구일꾼 임명

또한 집사 임명식에 이어 12개 교구의 교구장, 103명의 지역장과 36명의 부지역장, 236명의 남·여 다락방장 그리고 12명의 교구간사 등 교구일꾼 임명식도 갖는다. 임명된 교구일꾼들은 오

늘 열리는 교구 총회에서 각 교구 식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된다.

Ⅲ부 예배 후 교구총회

교구총회가 오늘 3부예배 후 1층 예배실에서 열린다.

오늘 모이는 교구총회는 새로

임명된 교구장, 지역장, 남·여 다락방장, 권찰, 교구간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된다.

교구총회를 마친 후에는 별도의 교구별 속회가 열린다. 이 속회에서 교구일꾼들은 담당 교역자와 인사를 나누고 내년도 교구 행정과 교구활동 계획을 수립하며 교구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

1998년도 교구위원회

교구위원장 정병무 장로 교구위원회 지도 이순환 목사
서기 박두영 집사 회계 탁경준 집사

교구	지도	교구장	간사	다락방
1	박귀환	오정수(임광식, 이웅선)	이은희	논현, 신사, 청담, 압구정, 삼성
2	박귀환	정병무	이해순	역삼, 개나리아파트, 영동아파트, 성보아파트
3	이성득	김상철	정동호	대치, 도곡, 개포, 일원, 수서, 자곡, 양재
4	이성득	김태기	박미혜	반포, 잠원, 서초, 방배
5	민영수	노문환	탁경준	과천, 안양, 의왕, 평촌, 남현, 사당, 흑석, 봉천, 상도, 신림, 군포, 수원
6	민영수	민순구	박정수	영등포, 양천, 강서, 구로, 광명, 부천, 인천
7	김정현	김영준(나희주, 이영기)	최정희	용산, 중구, 종로, 마포, 서대문, 일산, 고양, 은평
8	김정현	김대호	제오복	삼선, 안암, 미아, 수유, 우이, 쌍문, 월계, 상계
9	이순환	윤봉준	박두영	중곡, 구의, 자양, 성수, 홍마, 금호, 동대문, 중랑, 남양주, 미금
10	이순환	최종시(성준경)	김선수	둔촌, 길동, 명일, 하남, 광주, 양평, 이천, 청주
11	이순환	박철훈(홍정호)	허 숙	신평, 잠실, 송파, 화밀리, 가락, 문정, 오금
12	이순환	김광신(이남호)	최일춘	성남, 분당, 수지, 신갈

스데반회 총회 13일 개최

스데반회(간사 하영수 집사)는 13일(토) 오후 5시에 총회를 갖는다.

당회는 1998년도 새 간사에 임훈규 집사를, 총무에 박두호 집사를 각각 임명했다.

스데반회는 우리 교회 안수집사들의 모임으로 교회 봉사에 앞장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교인들의 칭찬을 받아왔다.

다음 주일 찬양대원 임명

다음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가브리엘·할렐루야·임마누엘 찬양대원을 각각 임명한다.

다. 그리고 찬양예배 시에는 베들레헴 찬양대원과 미가엘 찬양대원, 글로리아 찬양대원 임명식이 있다. 호산나 찬양대원과 시온 찬양대원은 17일(수) I·II부 예배 시 각각 임명을 받는다.

각 전도회 총회 다음 주까지

전도위원회에서는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의 총회를 다음 주일(14일)까지 모두 마쳐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15일(월)까지는 모든 선교회와 전도회의 보고서를 전도위원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12월 학습·세례식

올 마지막 학습·세례식이 17일(수) I·II부 예배 시에 거행된다. 학습자를 위한 교육은 7일(주일) 새가족부 집회시간에, 세례자를 위한 교육은 14일(주일) 새가족부 집회시간에 각각 실시하며 이에 미참한 성도들을 위해 15일(월) 오후 7시 한 차례의 교육 기회를 더 마련하였다. 학습이나 세례를 받고자 하는 성도는 반드시 1회의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학습·세례자 문답은 16일(화) 오후 7시 4층에서 갖는다.

자세한 문의는 새가족부로 하면 된다.

이사야

이스라엘의 죄

1장 2~4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의 품을 떠나는 배은 망덕의 죄를 범했습니다.

1. 첫 번째 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는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한 죄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라 하심은 낳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셨습니다. 보존시켜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돌봄 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오히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외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늘과 땅을 향해 인생들의 무지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 두 번째 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는 책임을 못다한 것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주인을 위해 멩을 메며 나귀는 멀리 갔다가도 자기 여물통을 찾아옵니다. 짐승들도 이같이 분별력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소홀히 생각했습니다. 너무 미련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치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부끄러운 일을 자꾸만 반복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위태로운 상태를 알지 못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재산과 명예와 평

안을 자랑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불으시면 겨처럼 날아가버릴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3. 세 번째 죄

이스라엘의 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1:2-4)

이종윤 목사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 하고 물러갔도다”(4절).

죄는 점진적으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약1:15).

죄는 자라납니다. 죄의 싹을 빨리 뽑아버리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자신을 삼킬 만큼 자라게 됩니다. 결국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는 자녀들이 성장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와의 대화를 즐겁게 여기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일이 생긴다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자꾸만 생기게 되면 악이 내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빨리 감지해야 합니다.

그 단계가 조금 지나면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종교적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악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죄와 타협하게 되고 그 삶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죄가 조금 더

깊어지면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순간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 때에 이르러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시 7:11).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면 인간은 무서운 때를 맞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야가 말한 이스라엘의 죄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 전체가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패함에 대해 선지자는 분노를 터뜨리며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의 중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슬퍼하신 것은 배신의 죄입니다. 복을 내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공의와 도덕과 종교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백성이 짓고 있는 죄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우상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죄를 민족적으로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가 갖가지 위기에 당면하게 된 것을 영적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저주가 무겁게 짓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안을 활짝 열어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매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는 우리 자신과 우리 민족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문 - 신입권사 교육을 받으며

“기도하는 사명, 잘 감당케 하소서”

원복순 권사(4교구)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신 주님! 십자가의 크신 능력을 베푸신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십자가 안에 있음을 이번 권사 교육과정에서 배우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다시 주님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과 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을 배우며 다 읽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올바로 증거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권사들이 큰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해 힘써야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죽게 하시고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하여 겸손하고 경건하며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교회를 내 몸같이 섬기는 충성하는 권사가 될 것을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특권의식과 공로 의식, 부서 이기주의, 기득권 주장 등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이고 참으로 주의해야 할 일임도 깨달았습니다. 권사란 첫째, 사랑이 넘치고 용서할 줄 아는 인격의 소유자여야 함도 배웠습니

다. 그 어느 누구라도 다가와 기도를 부탁하는 따뜻한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할머니가 되어주리라하는 마음을 다져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들께 순종하며 목사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섬김의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마음으로 잘 보필하겠습니다. 또한 기둥같은 장로님들께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 권사의 사명이라는 것도 잘 기억하겠습니다.

탁아부에서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서울교회에서 자라나는 양들을 늘 깊은 관심과 기도로써 후원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우리 권사들에게 주어졌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렘3:33)하신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배운대로 섬기겠습니다.

순례길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자꾸만 심어보자”

조대영 (5교구, 초등부 교사)

몇 해 전, 큰아버님께서 폐암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으시던 순간이 떠오른다. 큰아버님은 어릴 적 ‘크리스마스 교인’이었다. 선물도 주고 재미있는 행사가 있을 때 교회에 나가본 경험이 있을 뿐 그분의 삶은 조상의 제사를 잘 치러드려야 그 은덕으로 모두가 잘 된다는 이상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셨다. 그러나 큰아버지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사랑으로 지키시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갈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찬송하고 회개하며 흘리시는 큰아버님의 기쁨의 눈물과 그 속에 비치는 마지막의 거

룩한 행복은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옷매무시를 정갈히 하고 스스로 청하여 세례를 받고 고통이 아닌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

* * *

아이들에게 교회 오라고 권하는 일은 매우 쉬운 것처럼 느껴진다. 선물이나 먹는 것 때문에 교회 문턱에 들어서는 아이들도 있다. 물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은 대부분 한 두 주 후에는 다시 볼 수 없게 되어 “요즈음 아이들 너무 영악하다”는 생각과 더불어 서운한 생각이 들게도 된다. 그런가 하면 몇 주 교회에 나오다 안보이는 아이들 중에는 어른들의 만류 때문에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다음에 커서 저 혼자 교회 나갈거예요”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무섭게 다가오는 어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한 두 번 발을 들여놓다가는 아이들 때문에 전도란 어려운 것이라는

★ 대강절 단상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제 1차 대전이 독일의 항복으로 막을 내릴 즈음 어느 치열했던 전선에서의 일이다.

독일 군과 프랑스 군이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저녁이 되었고 치열한 전쟁터에 눈이 내렸다. 그 때 프랑스 군의 참호 속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크리스마스야!”

참호 속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찬송가가 흘러나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몇 사람이 함께 부르다 점차 모두의 합창이 되었다. 그 합창은 약속이라도 한듯 독일 군의 참호 속에서도 가득히 울려 퍼졌다. 누가 제의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그날은 휴전이 되었다. 평화로운 전쟁터였다.

올해도 성탄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때보다 분요하고 불안한 가운데 맞이하지만 평화의 왕을 마음에 모신 우리는 변하지 않는 희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 대강절이란? 대강절이란 교회력(敎會曆) 상으로 성탄절을 앞둔 네 주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의미상으로는 주의 날(the day of the Lord; the Great Day)을 대망하는 절기이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이를 축하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이를 준비하는 절기로 삼는다.

생각도 들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교회에 들러본 경험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들 영혼에 복음의 씨앗이 알게 모르게 뿌려지기 때문이다.

해마다 전도운동인 비전 2000운동을 전개하는 우리교회 프로그램을 이러한 희망으로 대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된다. 매주 토요일에 떡볶이 잔치를 벌이고 조금 지나면 버릴지도 모르는 아까운 전도지를 학교앞에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작은 수고를 기꺼이 할 수 있음도 이들이 먼 훗날 어느 날엔가, 혹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부르며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희망에서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러한 희망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묵묵히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 우리 죄를 씻으신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내 주변에서 보아온 많은 교사들의 수고에 복을 빌어마지 않는다.

12월 행사 게시판

일자

행사

- 5일 권사회 총회
- 7일 서리집사 · 교구일꾼 임명식
교구총회
- 13일 스테반회 총회
- 14, 17일 찬양대원 임명식
- 17일 학습 · 세례식
- 21일 교회학교 교사 임명식
- 21일 성탄축하 찬양예배
- 24일 성탄축하잔치
- 25일 성탄절 예배(I · II부)
- 28일 새가족환영회, 교사대학
- 1월 1일 0시 송구영신예배

1998년도 교육위원회 조직

· 교육위원회 지도: 박귀환 목사 · 교육위원장: 최종시 장로

교회학교	지도	부장	부감
탁 아 부	이영희 집사	성준경 장로	이계홍 집사, 이부자 권사
유 치 부	신미숙 전도사	김영준 장로	이관규 집사, 이해순 권사
유 년 부	이상진 목사	이영기 장로	노송성 집사, 최정자 권사
초 등 부	이상득 목사	최종시 장로	우지원 집사, 유명석 권사
중 등 부	민영수 목사	나희주 장로	박두호 집사, 김예환 권사
고 등 부	김정현 목사	박철훈 장로	오광환 집사, 이은희 권사
대 학 부	박귀환 목사	정병무 장로	이완형 집사, 김정희 권사
청 년 부	김정현 목사 (이만열 전도사)	노문환 장로	이변생 집사, 윤갑숙 권사
장 년 부	김영한 목사	김광신 장로	하영수 집사, 이정자 권사
소 망 부	우심화 목사	이남호 장로	김일용 집사, 전행자 권사
사 랑 부	김성국 전도사	김태기 장로	윤찬오 집사, 김숙자 권사
새 가족부	이순환 목사	오정수 장로	김세재 집사, 최금자 권사

동정

- ◆ 이종윤 목사는 8일(월) 세계선교회협의회 회장단 모임, 9일(화)에는 총회선교동역자위원회 모임에 각각 참여한다. 또한 12일(금)에는 한국기독교교도소추진위원회 임원회를 소집한다.
- ◆ 이번생 집사(12교구, 청년부 부감)는 미군 재향군인회와 해외 참전향군회 초청으로 11월 29일 출국, 두 주간 동안 각종 회의 참석 및 시찰을 한다.
- ◆ 배영준 집사(?교구, 임마누엘찬양대 지휘)는 11일(목) 오후 7시 30분 문화일보홀에서 '바리튼 배영준 독창회'를 갖는다. 이날 피아노 반주는 배 집사의 부인인 이미경 집사가 맡는다.
- ◆ 박정신 집사(11교구, 할렐루야찬양대 지휘, 단국대음대학장)는 11월 28일(금) '단국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관현악의 밤' 행사를 가졌다.
- ◆ 김명현 목사는 독일 하노버 한민교회의 청빙을 받고 15일(주일)자로 사임하고 임지를 옮기게 된다.
- ◆ 박종상 선교사는 1일(월)에 귀국하여 약 3주간 체류 후 다시 임지로 돌아갈 예정이다.
- ◆ 박철훈 장로(11교구, 예배위원장)는 2일(화) 서울영동기독실업인회(CBMC) 제 5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 ◆ 우리교회에 대지를 이양한 목양감리교회는 고 배상길 목사 후임으로 유관지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했다. 유 목사는 그간 극동방송국에서 사역하였으며 목양교회에는 11월 28일(금)에 부임하였다.
- ◆ 이번 주 봉사자를 위한 식사는 이남성 · 최영란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순례자 컬럼 ✦

지금은 기도할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사단의 방해는 극심해진다.

유다의 히스기야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산당까지 철거했지만 앗수르의 침공을 받아 나라가 황폐해 되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고 성전기둥의 금까지 벗겨서 조공으로 바치며 타협하려 했으나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셔야 하는 굴욕을 당하고 말았다. 상한 갈대 지팡이같은 애굽을 의지해 보았지만 찌르는 가시처럼 더욱 괴롭게 하였다.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고야 비로소 그는 산헤립의 능옥의 편지를 들고 조종히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다.

절망의 순간은 기회의 순간이기도 하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극명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다. 반드시 도우실 것임을 믿고 구하자.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98년도에 수고할 각 부서 일꾼들을 위해
2. 나라와 민족을 위해
3. 환우들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